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제 추모사

바다에 잠든 영령들이시여!

우리 한국불교대표단은 긴 세월을 지나 오늘에야 이곳 도쿄나미 앞바다에 당도하였습니다.

1942년 2월 3일 이후, 74년이 흐른 지금도 비좁은 갯도에 육신을 누인 채 구중을 떠돌고 계실 고인들의 비통함과 억울함은 가히 짐작키도 어렵습니다. 조국을 잃은 아픔도 크나큰데 이역만리 타국에서 두 개의 송풍구인‘피야’에 의지해 강제 노역을 살았던 그 시절의 설움은 또 얼마입니까?

강제로 징용되어 내 나라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유일한 힘이었던 민족의 젊음들, 당신들을 보내고 남겨진 가족들 역시 제대로 된 공양도 올리지 못 하는 삶 속에서 비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물질의 이익에 눈이 멀고 전쟁에 집착한 잘못된 욕심이 지난 수십 년간 수몰사고 희생자의 고통과 속박을 올곧게 치유하지 못하고 인간의 도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 두 개의 ‘피야’만이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며 묵묵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야마구치 다케노부’ 선생과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 그리고 양심있는 우베시민들의 노력이 아니었더라면 당시의 참사는 그 어떤 의미도 남기지 못하고 역사의 뒷안길로 증발해 버렸을 것입니다. 진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을 갖고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한국 불교계를 대표해 깊은 감사를 전해 드립니다.

영령들이여!

당신들의 후손으로서 한국불교대표단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깊은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고인들의 희생이 인류에게 귀감으로 남아 다시는 이
런 비극이 거듭되지 않도록, 모든 생명이 안온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인의 책무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영령들이시여, 고향 산하에 머물듯 가족의 품에 안기듯, 삼가 평온한 날
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편히 잠드소서!

불기2560년 1월 30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